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5월 9일 월요일 (음 4월 3일) 제155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부모님 땀과 눈물 잊지 않겠습니다”

4대 정당 어버이날 맞아 감사의 한복소리

여 “그동안의 사랑과 헌신, 대한민국 씨앗이자 원동력”
야 3당 “부모 세대가 겪고 있는 빈곤 바로 잡겠다”

여야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씨앗이자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부모님 세대의 강인함과 희생 정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한국전쟁과 보릿고개를 넘어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은 제4회 어버이날”이라며 “어버이날을 맞아 이 땅의 모든 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먼 데 있지 않다”며 “비싼 일상 속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부모자식간의 사랑만큼은 훼손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대한민국, 가족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도 같은 날 어버이날을 맞아 노령층 빈곤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 목소리로 노후 안정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부모님 세대가 겪고 있는 빈곤과 소외의 현실을 바로잡아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며 “많은 부모님들이 당신들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소외에 시달리고 있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

율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에 송구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당은 현재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차등 없이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반드시 지키겠다”며 “또 노인 일자리를 100만개로 늘리고 일자리 참여수당도 월 40만원으로 인상해 노인 빈곤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저소득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약값도 대폭 경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궁핍했던 시대, 우리의 부모님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자식들을 키워냈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다”며 “어버이날을 맞아 당신들께서 흘린 그 많은 땀과 눈물을 되새기며 다시 한 번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희경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는 급속한 고령화와 양극화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와 가족애를 나누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당은 노후 안정 등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 하루로 부족한 어버이날이다. 우리 사회 모든 아버지의 은혜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정의 평화와 사회의 발전이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아버지들의 이룬바와 달리 대한민국은 합당한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우리 당이 지난 총선에서 OECD 평균 수준의 노후 소득 대책과 주거·요양·의료 3대 가계비 해소 방안을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제시한 것과 지역사회와 함께 노년기를 보낼



동학혁명을 몸짓으로

지난 6일 전북 부안의 대표축제인 '제4회 부안마실 축제'가 부안을 시가지 일원에서 개막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를 기념하는 퍼포먼스가 거리퍼레이드의 서두를 장식했다. 부안 예화무용단의 단원들이 나와 동학농민혁명의 상황극을 아름다운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수 있는 권리 보장과 노인 인권·존엄성 증진에 대한 약속을 공언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정의당은 어버이날을 맞아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삶에 ‘복지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다”며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소중한 헌신에 정당한 권리가 부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버지의 이름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게 이른바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해 철저히 수사 하고, 그동안 우리 어버이들에게 한 약속을 실천해 산처럼 쌓인 부끄러움을 한 줄이라도 덜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성주 기자

“北 제재 · 압박 지속할 것”

외교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보일때까지

김정은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 고수 확인”

정부는 8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제7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總和) 보고에서 ‘비핵화 실현을 위한 노력’을 언급한 데 대해 “비핵화 초점을 흐리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때까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제1위원장의 이날 발언 중 핵 관련 언급에 대해 “지금까지 주장해온 여러 기존 입장을 집대성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은 결국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고수하고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핵개발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김 제1위원장이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 노선으로 제시했고 ▲핵보유국으로서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

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세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비핵화’ 언급에 대해 “전 세계의 비핵화 전까지 북한은 비핵화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라며 “전 세계의 비핵화 개념과 핵보유국 개념이 합쳐지면 앞으로 핵군축(핵무기를 축소하는 일)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므로 비핵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제1위원장의 북·미 평화 협정 체결 요구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핵화가 중심에 있다”며 “평화협정과 같은 문제로 인해 (비핵화가) 호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북 제재를 위한 추가 협의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며 “당장 어떤 계획이 있다기보다 당대회가 종료되면 그 결과에 대한 여러 평가를 교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용주 기자

社告

제3회 전국 품바 명인전

품바는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서민들의 진솔한 삶을 담은 풍자요 해학이었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삶의 회로악락, 정치·사회문제 등에 대한 신랄한 풍자로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의 전통예술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본사는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전국의 품바 명인들을 초청하여 전통문화예술의 중심지인 전주에서 제3회 전국 품바 명인전을 열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일시: 2016년 5월 13일(금) 오후 4시
- 장소: 전주 풍남문광장 특설무대
- 주최: (사)전북다문화진흥원
- 문의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

▶ 매일 INDEX

2면 도-강소성 협력 · 이해 증진

8일 전북도와 중국의 강소성은 우호교류 확대를 위한 협의를 체결하는 등 양 지역의 우호를 다지는 자리를 가Uzza.

3면 더민주 원내부대표단 확정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11명으로 구성된 원내부대표단 인선을 확정 발표했다.

5면 장애인 산모 지원제 주목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전주시가 장애인 임산부를 위해 특화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 지원제도를 펼치고 있다.

16면 전국농악경연대회 성료

부안농악보존회가 주최한 '제4회 전국농악경연대회'가 8일 부안군청 광장에서 펼쳐졌다.